

# 호천 테마 독서

## "날씨"



전주호천초등학교 도서관



### 〈오늘의 날씨는〉 이현 / 창비

반 친구의 시계를 자신도 모르게 잃어버린 동희. 함께 사는 방글라데시인 노동자 형이 단속에 걸릴까 조마조마한 종호. 줄곧 살았던 아파트를 떠나야 하는 영은이. 좋아하던 오빠가 동네를 떠나게 된 정아. 네 명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하루이지만 날씨처럼 다양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. 슬픈 현실에 부딪힌 아이들은 자신의 힘든 것들에 맞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.

### 〈도대체 날씨가 왜 이래?〉 안동희 / 아롬주니어

지금까지 지구는 다섯 번의 대 멸종이 있었어요. 많은 과학자는 여섯 번째 멸종이 일어난다면 지구 온난화가 원인일 것이라고 말해요.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이상 기후와 기상 이변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현상들이지요. 해마다 더워지는 여름, 녹고 있는 북극 빙하들과 같이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. 왜 이런 현상들은 나타나게 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?



### 〈선생님, 오늘 날씨 어때요?〉 수지 모건스틴 / 크레용하우스

날씨에 관심이 많은 알리제 선생님은 반 아이들에게 특별한 수업을 진행해요. 아이들이 흥미로운 날씨 현상을 보이는 지역을 골라 직접 일기예보를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. 첫 번째 발표자인 셀리아는 수영복을 입고 돛자리에 누워 자신이 느낀 점들을 설명하자 알리제 선생님은 큰 감동을 받았어요. 두 번째 발표자는 또 어떻게 발표를 준비했을까요?

### 〈보고 듣고 생각하는 날씨의 과학〉 파울로 소토코로나 / 책속물고기

일기예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.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으면 우산을 준비하고, 춥다는 소식이 있다면 옷을 더 따뜻하게 입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날씨는 떨 수 없는 존재예요. 하지만 날씨와 기후를 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어렵게만 느껴집니다. 기상학자 파울로 할아버지가 알려주는 눈높이 날씨 공부를 배운다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.

